서울 토박이가,
산청 터줏대감이 되기까지

#뭐든지 만드는 사람 #이다혜 #감선옥

서울에서 나고 도쿄에서 미술을 공부하던 제가,
지금은 산청에서 곶감을 만듭니다.
낯선 이방인이 이 땅의 '터줏대감'이 되기까지-
지난 1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15 ~ 2018

스물다섯, 서울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공부를 하다
예정에 없던 산청으로.

부모님을 따라 내려온 산청은,
서울 토박이에게 아는 얼굴 하나 없는 낯선 타향이었습니다.
도쿄에서 공부하던 내가 갑자기 왜 이 곳에 있어야 하나,
외롭고 막막한 감정과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낯섦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2019

그러다,
마음이 처음 반응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처음 맛본 곶감의 매력과 가치.

그러던 어느 날 맛본 산청곶감.
'서울에서도 이런 맛은 없었는데.'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귀한 곶감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마음.
그게 제가 산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2020 ~ 2023

저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로컬 메이커였습니다.

곶감, 그리고 산청 홍화씨로 만든 여성 건기식 '여력'

곶감 농가에서 직접 만드는 법을 배웠고,
산청의 약용작물 홍화씨로 여성 건강기능식품 '여력'에도 도전했습니다.
넘어지기도, 돌아가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부딪히며 '뭐든지 만드는' 로컬 메이커로 성장했고,
그 수많은 도전이 지금의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 ~ 2025

그리고 역시
저에게 본질은 곶감이었습니다.

감선옥 · 대통령상 · 농식품부 장관상 · 마켓컬리 · 그랜드하얏트

수많은 도전 끝에 깨달았습니다.
돌고 돌아, 제 본질은 곶감이라는 것을.
3년을 준비해 세운 하이엔드 곶감 브랜드 '감선옥'은
대통령상과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았고,
마켓컬리와 그랜드하얏트에까지 올랐습니다.
이방인이 산청에서 만든 작은 브랜드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됐습니다.







2026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낯설었던 땅이, 많은 이들의 만남과 도움을 받아 성장하며 가장 사랑하는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곶감 농부들과 산청군, 경남의 손길이 이방인을 품어주었어요.
수많은 만남과 성장 속에서, 가장 낯설었던 땅은
어느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서울 토박이가 산청의 '터줏대감'이 된 건,
결국 경남이라는 땅이 저를 키워준 덕분입니다.






태어난 곳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선 그 자리에서,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산청의 겨울볕을 세계인의 식탁으로 잇는 꿈을 꾸며, 오늘도 이 땅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방인에서 경남에 깊이 뿌리내린 터줏대감, 이다혜입니다."

감선옥 대표 · 이다혜